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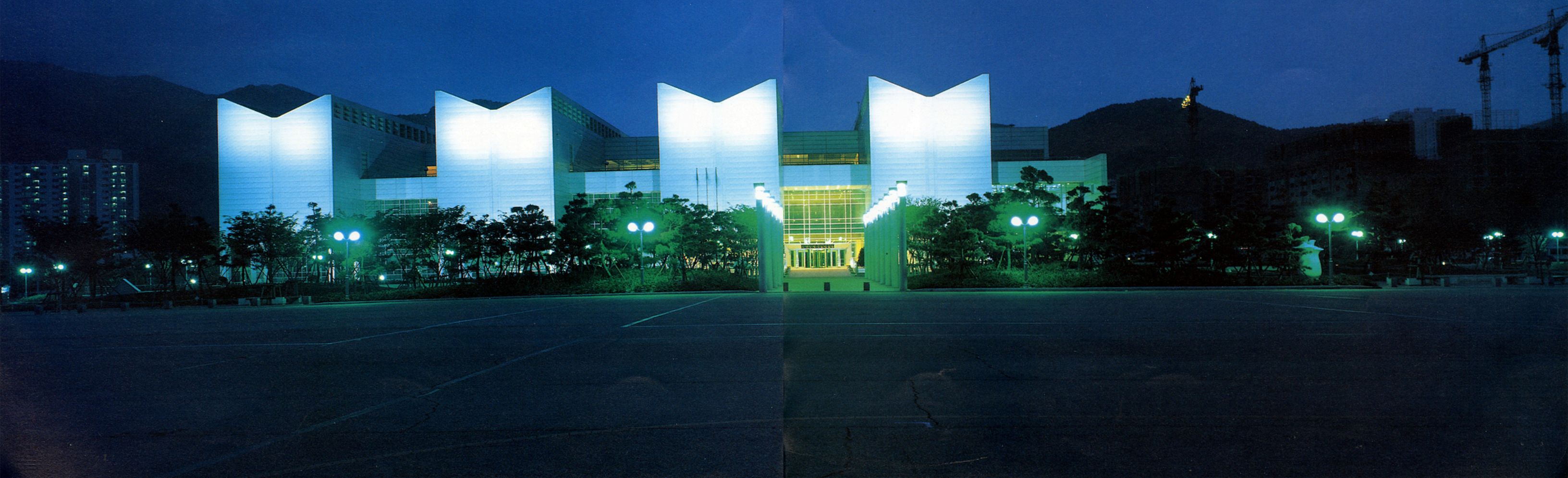
일신설계 2제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

Pusan Metropolitan Art Museum

이 용 흠 Lee Yong-Heum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올림픽공원 쪽에서 본 전경 (기념표기의 본란사진/ 이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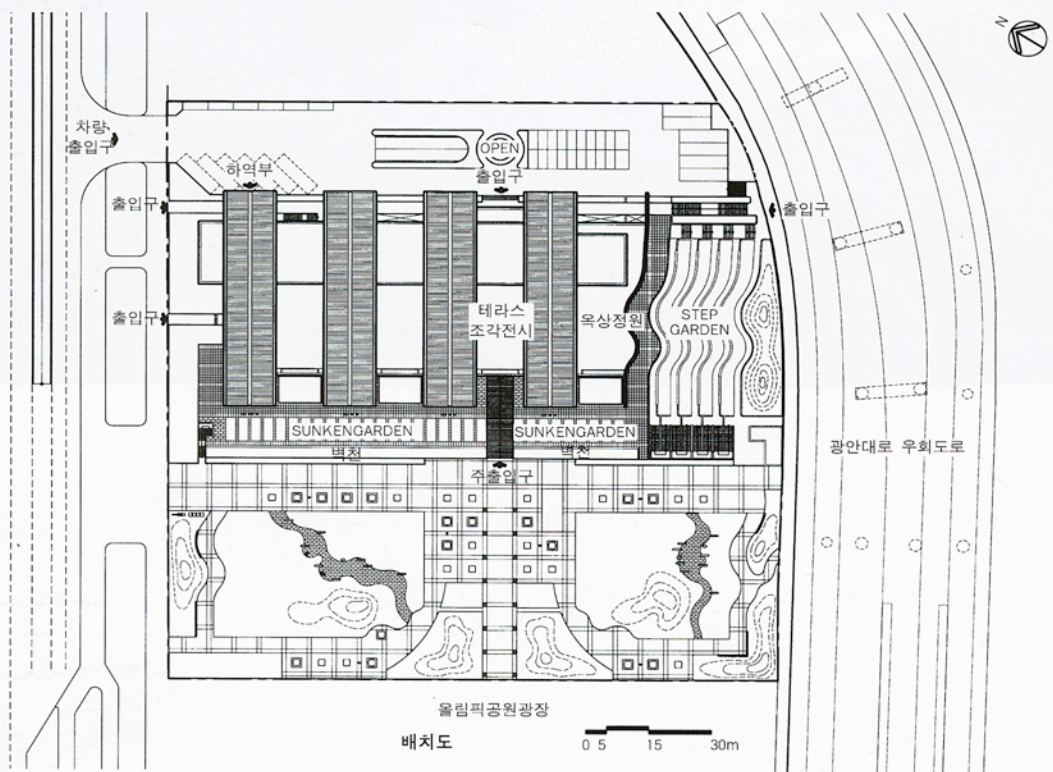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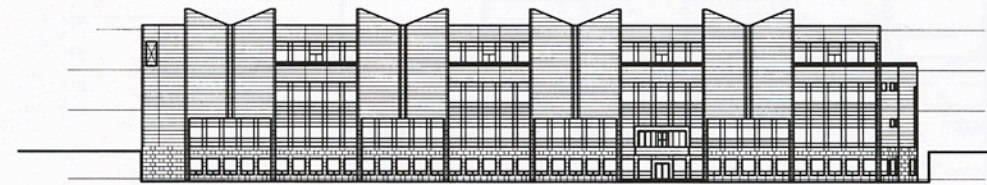
입면을 올려다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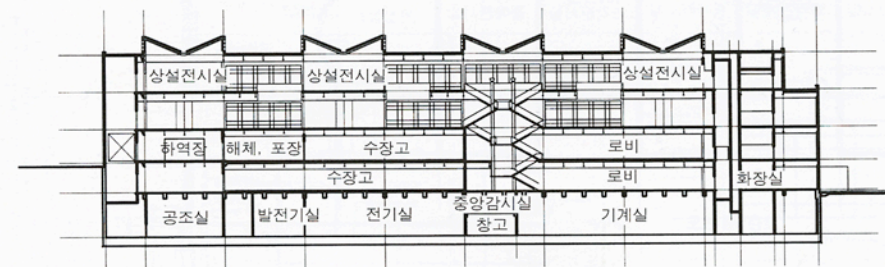
올림픽공원에서 진입하는 주출입구



올림픽공원광장 배치도 0 5 15 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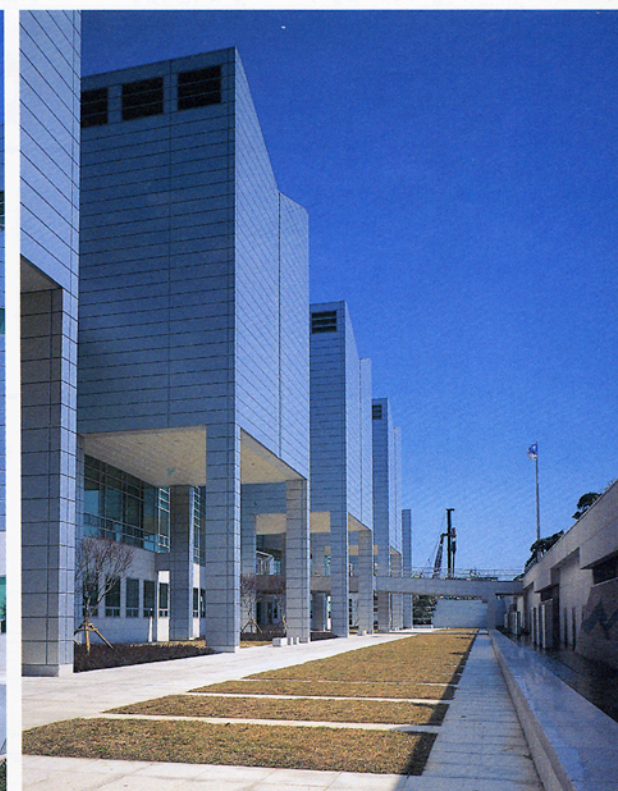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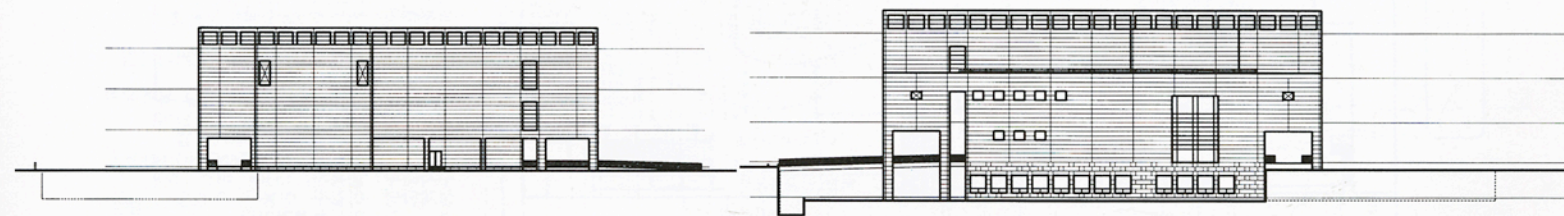
주단면도



스텝가든쪽의 곡면으로 처리된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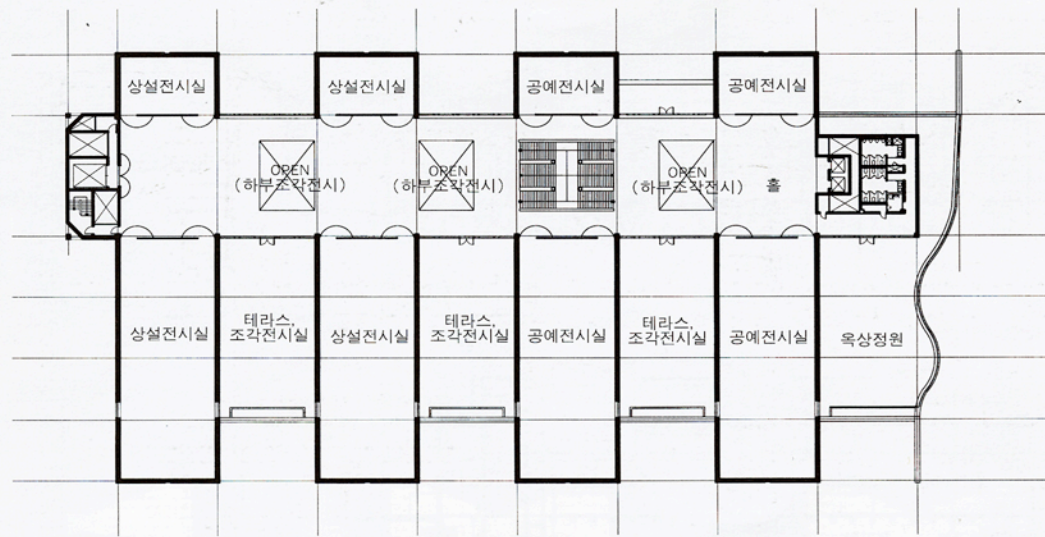
벽천이 있는 썬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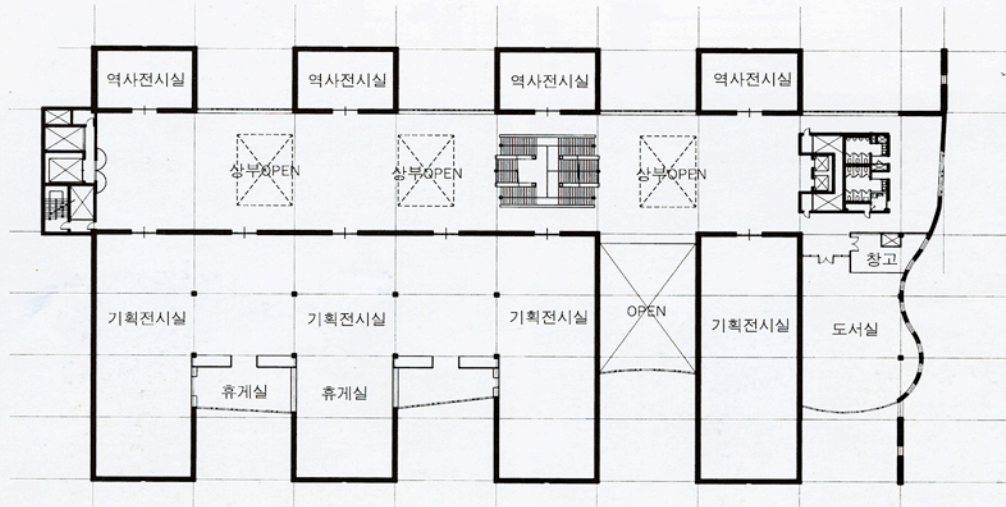
좌측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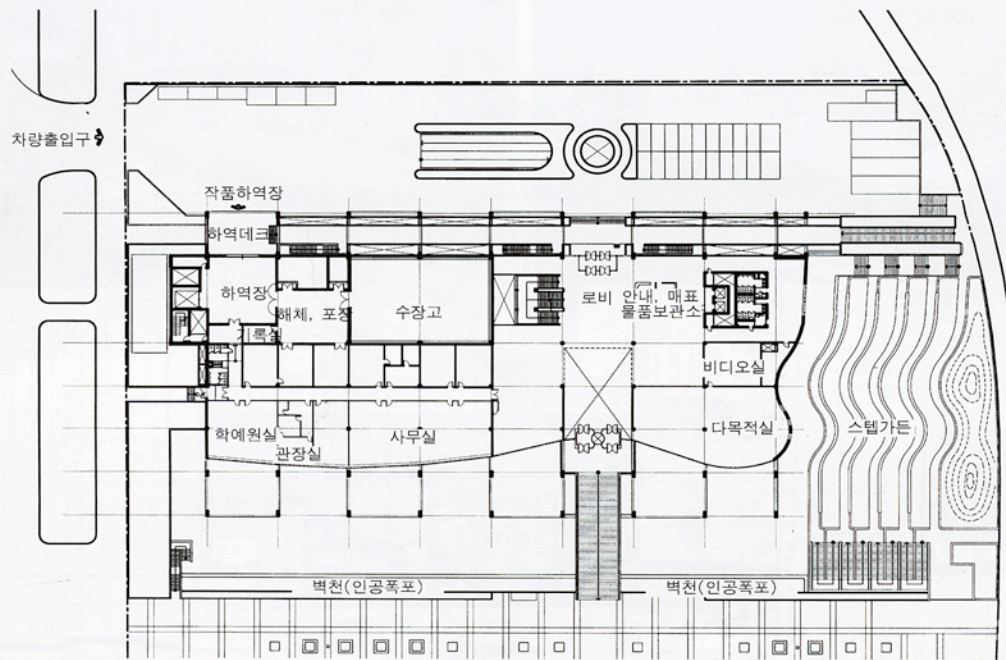
0 5 15 30m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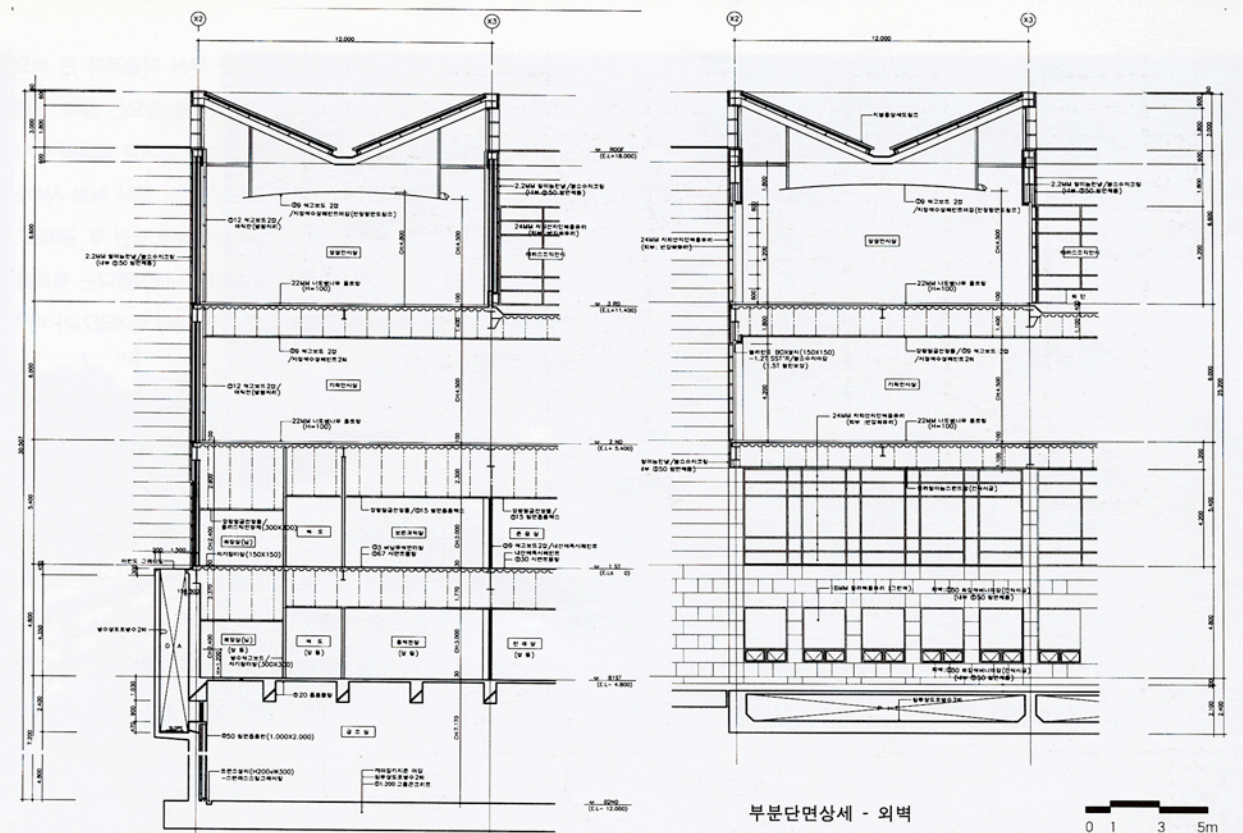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위 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올림픽공원내)
 대지면적: 21,560㎡(6,522평)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
 용도: 전시시설(미술관)
 구조: 철골조, 일부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주차장)
 규모: 지하2층, 지상3층
 건축면적: 4,777.14㎡(1,445.08평)
 연면적: 21,425.70㎡(6,481.27평)
 건폐율: 4.12%
 용적률: 9.83%
 조경면적: 8,652.2㎡(2,617평)
 외부 마감: 외벽/2.2mm알루미늄판넬, 불소수지코팅,
 지하1층 외벽: 화강석버너마감(포천석)
 창호/24mm자외선차단복층유리, 18mm칼라복층유리(그린색)
 지붕/①91샌드위치판넬, 0.5mm동마감(STANDING ROOF)
 주차대수: 승용차/153대, 버스/5대
 설계담당: 이길주, 이봉두, 이승엽
 감리: 일신설계감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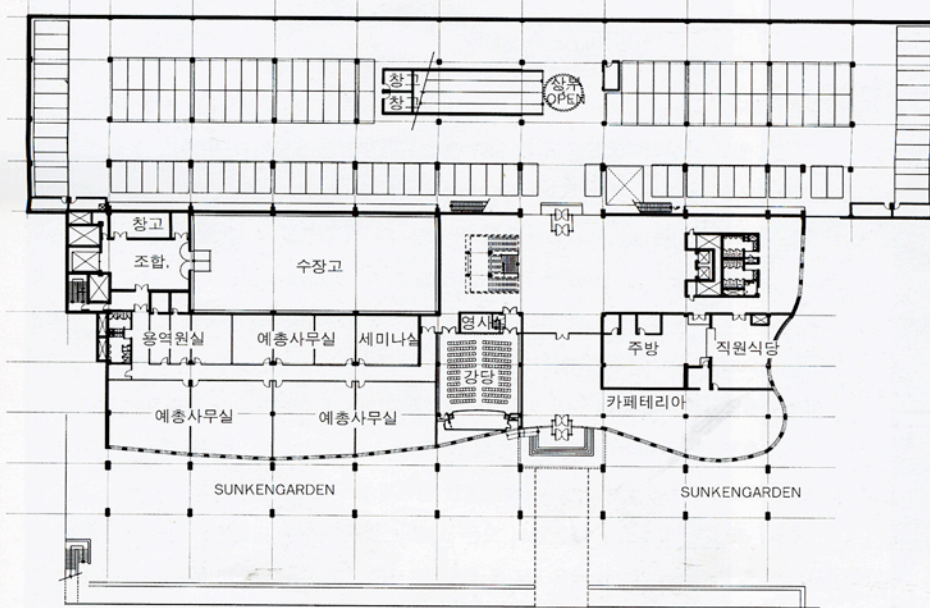
0 1 3 5m



조각전시가 되는 테라스 (사진/ 박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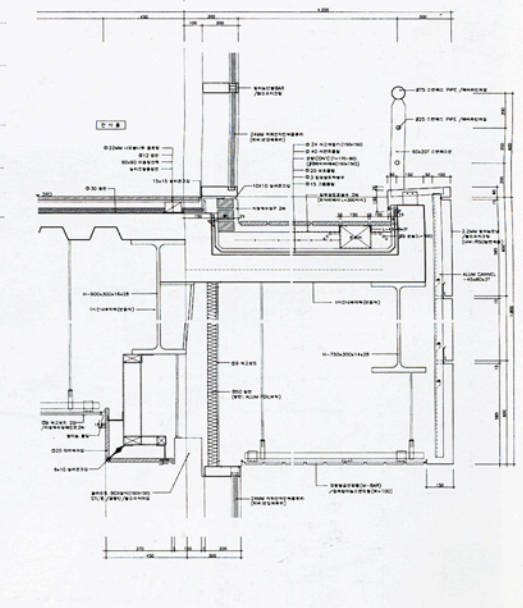


옥외전시를 할 수 있는 옥상정원 (사진/ 박은실)



지하1층 평면도

0 5 15 30m



부분단면상세 - 외벽

대담 Conversation

이 대담은 부산시립미술관 완공후 건축가의 사무실에서 4월 8일 2시간 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경일대 현택수 교수와 시립미술관 설계자인 이용홍씨의 대담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현택수: 지난 3월 20일 부산시립미술관의 개관은 부산 미술계의 큰 획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건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괄목할만한 업적을 쌓으신 중에 미술관으로 건축적 성과를 더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설계를 맡게된 배경과 경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용홍: 93년에 전국설계경기를 통해서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사무실은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지난 1월 완공된 부산시청사 현상설계 당선 후 곧바로 시립미술관 설계경기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부산시에서 미술관을 지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도 미술관의 운영 프로그램과 성격 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경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설계의 출발점은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택수: 부산시의 의욕적 사업인 것같은데 부산시립미술관의 탄생은 상업무역도시라는 부산의 이미지에 문화예술의 향을 불어 넣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건축을 선도해오신 선생님께서 부산지역 최초의 순수미술문화공간 계획에 남다른 의지가 있지 않으나 짐작됩니다만.

이용홍: 미국여행시 어렵게 찾았던 루이스 칸(Louis I. Kahn)이 설계한 김벨미술관(Kimbell Museum)을 보고 의외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재료가 노출콘크리트인 이 미술관의 첫인상은 평범한 창고같은 느낌을 주었고 내심 약간의 실망을 하였으나, 다 보고난 뒤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흔히 미술관은 '건축의 꽃'이라는 말을 하는데 일생에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에 자극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택수: 미술관을 건축하는 일은 결국 하나의 문화행위로 볼 수있기에 건축인 뿐만 아니라 관람자에게 영향을 파장이 크다고 하겠습니까. 건축가의 의도를 나타내어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자세로 작업에 임하신 줄로 이해됩니다. 근대이전의 미술관이 수집하고 보관하고 전시하여 주로 개별적 차원에서 조사를 행한 것도 뮤지움의 고유한 내재적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대중과 시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교육과 홍보, 지도와 봉사 기능으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문화에 상응하는 건축적 적응성은 어떻게 다루셨는지요?

이용홍: 미술관 고유기능을 근간으로 시민들의 친근한 접근에 더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과 썬큰가든, 스텝가든 등과 연계하여 미술관내의 넓은 로비, 휴게공간, 카페테리아, 아트숍 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들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인 셈이지요.

현택수: 공적 성격으로써 문화의 장이 되도록 배려하고, 관람자의 행위를 객관자의 위치가 아니고 주체자의 위상을 갖도록 고려한 것 같습니다. 건축은 기존의 상황이 내재된 터(부지)위에 연관성을 지닌채 자리잡기 때문에 주어진 대지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적 성격을 읽어내는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대지를 풀어가면서 우선시한 배치개념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용홍: 시립미술관 부지 바로 옆에는 수영비행장이라는 군사시설이 있었습니다. 약 30여 만평의 이곳 대지에 대단위 정보단지가 들어설 계획이고, 천혜의 경관을 가진 해운대 해수욕장과 온천이 인근에 있고, 88올림픽요트경기장과 얼마 전에 완공된 부산 최대의 아파트타운 등과 특급호텔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부산 최고의 부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착공될 국제종합전시장과 컨벤션센터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정맞춤입니다. 설계당시에 수영비행장으로 인해서 건축물 높이가 20m로 제약을 받음으로 해서, 현 지반에서 5.7m 낮추어 건물을 제외한 전 대지를 썬큰가든(Sunken garden)화 했으며, 대지의 좌·우로 지나는 40m 도로와 25m 도로를 통해서 차량의 진출입을 명쾌하게 한 것과 삼면에서 보행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축개념을 도시의 축에 뚜렷하게 일치시킨 것도 배치상의 특징입니다.

현택수: 도로를 포함한 기존의 도시구성체계를 강하게 염두하신 것 같습니다. 주변상황으로 미루어 현재의 조각공원이라든가 광장 등의 오픈 스페이스를 수용하는 면으로도 보이구요. 전면부에 속도가 빠른 도로를 두기보다 넓은 평지를 정면성은 광장으로 통하고 도로 쪽으로부터는 진입 후 다시 돌아서 접하는 또다른 엔트런스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으로 25m 도로에서 차량



현택수 (경일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용홍 (일신설계 대표, 건축가)



썬큰가든위 브리지보드 (사진/ 박은실)



스텝가든



옥외 전시장

동선을 끌어와서 스텝가든을 두고 유연한 곡면으로 처리함으로써 직각입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한편 카페테리아, 휴게실, 도서자료실, 기념품점 등 공공공간을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전이를 이루었다고 보여집니다. 완공된 안에서는 차량진입이 40m도로에서 행해지도록 변경되었는데, 이런 것과 겹쳐 당초 현상안에서 달린 내용이나 관철되지 못한 설계의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안에서는 25m 부도로에서 미술관으로의 차량 진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수영정보단지의 신설로 인하여 40m 도로쪽의 광안대로의 차량 진입램프가 25m 도로쪽으로 바뀌었고 기존의 스텝가든(Step Garden)을 포함한 약 540평 면적이 도로측으로 속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술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전면부에 약 2,000평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여 조경공간으로 조성시켜 서로 상쇄시킬 수 있었습니다. 설계 당시의 개념에 변화는 있었지만 그런대로 모양새를 갖출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택수: 차를 타고 진입하면 속도감 때문에 느끼기 힘든 부분들을 보행하는 경우는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출입성이 사방으로 다양해 손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용흠: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은 40m도로에서 미술관 후면부로 진입하여 지하주차장 또는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자연스럽게 썬큰가든과 그리고 스텝가든 등으로 연계가 될 수 있으며, 공공교통을 이용할 경우 전면광장과 도로 좌우편의 입구를 통해 진입함으로써 외관의 관찰에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현택수: 계단식 정원과 벽천이 언급되었지만, 특히 현대건축에서 내외부 공간의 연계적 해법에 주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술작품을 접하는 행위는 연속적이고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이사이에 분절은 리듬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때 일광을 도입한든가 외부공간과 접목시키든가 전이공간으로 매개하든가 아트리움을 채택하던가의 방법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비적인 공간구성이 감상을 본질적으로 더 순수하게 강조할 수 있고 체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부공간의 외부화 계획은 어찌하셨는지.

이용흠: 2~3층의 전시장이 모듈화되어 있고, 각 단위 전시장 사이사이의 외부 공간에서는 조각전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잘 결합시킬때 관람자들의 욕구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택수: 전시공간에서 기능적인 해결은 아주 명쾌한것 같습니다. 왜냐면 순수전시공간을 파빌리온화 시켜 1, 2, 3으로 둔 가운데 큰 홀을 갤러리화된 광장의 개념으로 처리했으니 말입니다. 전시공간과 전시공간 사이에서 꼭 바깥공간이 아니라라도 전면으로 올림픽공원같은 자연과 풍광을 조망할 수 있게 하고, 휴게실을 전이공간으로 둔 것이 내외부 공간의 교류를 이루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설계당시에 담을 내용(미술의 장르 등) 자체가 명확치 않아 어려움이 컸을 줄 믿습니다. 그런 중에도 설치미술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그곳에는 옹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배려한 것 같은데 바닥마감과 벽면 마감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흠: 이 부분은 감리를 하면서 미술인단체와 협의해서 보강했습니다.

현택수: 소중한 미술작품에 향한 항습 메카니즘과 고가치 공간에 대한 방재대책에서 특별한 배려를 하신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흠: 시립미술관이란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시작품에 손상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항온 항습 시스템과 관람성을 높이기 위한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각별히 배려하였습니다. 각 실에 조닝을 둔 기능성 및 방재·방범 시스템 자동화를 완벽하여 안전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치의 미술작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온·습도 조절이 중요한데, 즉 하절기에는 건구온도가 26℃와 상대습도 50%로 유지하고 동절기에는 건구온도 20℃와 상대습도 45%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런 정전에도 작품에 손상이 없도록 자가발전시스템에 완벽을 기했고, 수장고에는 도난방지를 위한 3중 잠금장치가 갖추어진 수장고문과 화재시 초기진화를 위한 CO₂가스시스템이 있고 외부의 침입 및 건물 내부의 이상유무를 감지하는 센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장고가 썬큰가든 레벨과 같은 선상에 있어 우기시 침수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세 곳의 펌프실을 두어 작동하게 함으로써 다각도로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택수: 미술관에 있어서 빛은 공연장의 음향효과에 견주어서 말해지는데 채광과 조명에 관련한 빛의 설계에 관하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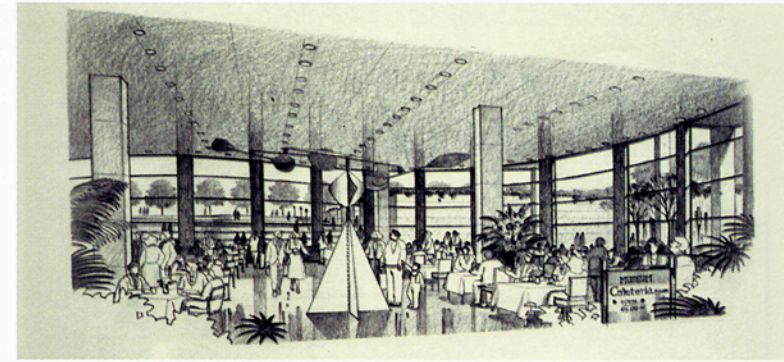
이용흠: 시립미술관은 고층창(Clear Story)을 이용하여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조화시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의한 작품의 손상을 막기 위해 고층창에 알루미늄 루버와 24mm 자외선차단 복층유리(히트미러)



스텝가든 (사진/ 박은실)



벽천 (사진/ 박은실)



카페테리아 실내 스케치

를 거쳐 입사된 자연광이 천장 내부랙산시트로 확산하여 전시실 벽면에 은은하게 빛을 주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막상 만족스러운 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연광선에 의한 작품의 손상, 눈부심에 대해 너무 의식해 효과가 감소되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현택수: 개인적으로 단순한 조형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료는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채택하여 오픈 조인트로 처리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셨는지요.

이용흠: 알루미늄 복합판넬은 하이테크(High Tech)한 건축물을 표현하는데 좋은 재료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바닷가에 위치한 시립미술관의 외벽 재료가 선택의 폭이 좁았던 면도 있었지만 현대적 미술관을 표현하는데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픈 조인트를 선택한 것은 조인트 폭을 30mm로 한 계획의도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이 방식을 국내에 처음 시도하다보니 기술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 좀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택수: 건축의 시대성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현대성을 강조하여 재료가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설계자께서 선호하셨지만 외형면에서 빛이 조정되는 개념은 어느 정도 반사효율을 지닌 알루미늄 판넬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시립미술관의 경우 4개의 전시동이 요철을 형성하여 일광에 의한 빛과 음영의 감이 잘 나타날 것도 같습니다.

이용흠: 그렇습니다. 시립미술관은 형태에서 오는 불륨감이 강하기 때문에 정오 때는 남향으로 면한 전시장 부근이 강렬하게 반사되고 그 사이사이에 패인 부분은 더욱더 들어가게 보여 음양효과를 나타내어 강한 매스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조명시 이런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택수: 미술관은 건축가의 예술적 기량을 드러내고 건축가의 작품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럴 때 건축가가 예술가의 위치를 확고히 다진다고도 합니다. 초두에 루이 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김벨 미술관에서의 진지한 감동에 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조형성과 공간성에서 독특한 재미나 감흥을 부여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용흠: 고도의 제약으로 인해 전 대지를 몽땅 들어낸 상태에서 중앙부에 미술관을 위치시켰고, 전면부는 썬큰, 25m도로쪽에는 스텝가든, 후면부에는 주차장을 배치하고 진출입동선을 브릿지로 계획하다 보니 자연히 채광과 통풍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콤팩트한 그리고 제약을 감수한 불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재미있는 공간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현택수: 제한적 상황을 발전적 요소로 극복하는 과정은 귀감이 될만 합니다.

이용흠: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 지상주차장 상부에 지름 6m를 오픈시켜서 톱라이트(Toplight)처리를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택수: 주차장에서 연출된 밝은 분위기는 그 때문인것 같습니다. 작품설명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포부와 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용흠: 건강과 의욕이 계속된다면 이 시대 우리 건축가들의 과제인 현대건축과 한국 전통의 접목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현택수: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신 가운데 열정을 가지시고 훌륭한 작품 활동을 내내 해주길 기대합니다. **IA**



직원식당에서 보여지는 스텝가든 (사진/ 박은실)



카페테리아 (사진/ 박은실)



2층 조각 전시홀 (사진/ 박은실)

부자 미술관과 가난한 미술

안 규 철 Ahn KyuChul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부산시립미술관 개관전 초대작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개관기념전 출품제의를 받고 전시장을 보러 간 것은 지난 겨울이었다. 곳곳에서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실내공간은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였다. 천장이 높고 시야가 탁 트인 전시실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우선 그 거대한 공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행했던 몇 사람의 작가들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시야에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는 그 텅빈 공간들은 초현실적인 연극의 무대처럼 보였다. 국내에서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만한 규모의 미술관이 흔치 않았던 것 같다. 미술관 건물은 그 전시면적에 있어서나 큼직큼직하게 분할된 공간의 스케일에 있어서나,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대규모 전시라도 충분히 치룰 수 있을 수준이었다. 채광, 조명, 마감재, 이동벽면 등의 시설은 외국에 내다 놓아도 손색이 없어 보였고,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한 디자인도 호감이 갔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큰 공간이 다 무엇으로 채워지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었다. 이 국제적인 수준의 하드웨어 속에 들어갈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웨어가 과연 그에 걸맞는 것이 될 수 있을까?

더욱이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미술계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IMF 체제에 발목을 잡혀 있다. 미술가들의 창작과 발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고, 특히 작업만을 업으로 삼는 이른바 '전업작가'들은 더욱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문화관련 예산은 우선적인 삭감대상이어서, 이번 개관기념전 예산도 대폭 깎였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이런 상황은 이 미술관의 규모와 거기 담기는 내용 사이에 불균형을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 도시 또는 한 나라 미술관의 규모는 우선 그 곳에서 생산되는 '의미있는' 미술생산품의 총계에, 그리고 그 곳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에 비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만한 공간을 의미있는 미술작품들로 채우고 또 그것을 의미있게 소비할 문화적 역량을 갖고 있는가? 경제위기가 문제라면 그 이전에는 과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 광주비엔날레가 그런 역량을 증명해주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 또한 문화적 '거품'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이 미술관은 마치 '국민소득 1만불시대'가 덧없이 흘러가버리고 난 뒤 마지막으로 남겨진 유산같았다. 우아하고 세련된 이 유산은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과분하고 버겁다.

이런 이야기는 애써 이 미술관을 지은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비난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냐? 혹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렇게가 아니라면 언제 우리가 이만한 미술관을 갖게 되겠느냐, 오히려 그나마 지어놓은 것이 다행 아니냐? 등등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도 그 반문들이 나름대로 타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근본적으로 이런 규모의 시립미술관을 짓기로 결정하고 거기 합의했던 한 시대의 발상에 대해서는 쫓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역사회가 미술을 위해서 이처럼

번듯하고 거창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심으로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공간이 남의 집처럼 낯설고 어색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나의 작가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무언가 석연치 않고 선뜻 그 멍석 위에 올라가는 것이 내키지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 그러한 미술관 공간과 실제 작품이 만들어지는 작업의 공간이 현격히 다른 환경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의 주변에서 작업을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같이 작업실 임대료에 쫓겨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소나 돼지의 축사로 지어진 시멘트 블록 건물을 얻은 사람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상당수는 우중충한 보온덮개를 뒤집어쓴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를 임의로 바꿔쓰는 것은 불법이어서 미술가들은 종종 단속반에게 시달리기까지 한다. 그런 작업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이처럼 매끄러운 대리석과 원목으로 바닥이 깔린 미술관에서 전시된다는 것은 영광스런 일이지만 그것이 나는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다. 창작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작업장과 미술관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또 한가지는 대부분의 미술관이 작품의 제작비용을 작가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는 점이다. 부산시립미술관의 이번 개관기념전에는 적으나마 제작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드문 일이다. 이런 예외를 빼놓고는 미술관이 작품 운송비 정도를 부담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심지어는 미술관이 작가들로부터 출품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변하는 미술관장도 만난 적이 있다. 도무지 이 사회는 미술가들이 어떤 환경에서 작업하고 무슨 돈으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미술가들이 만들어낸 결과물 뿐이다. 사회는 대규모 미술관을 짓고 전시회를 열어 작가들을 초대하는 것으로써 창작의 노고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또 그것으로 보상이 충분하다고도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같은 작가들의 '무료' 출품이 당연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미술관 공간이 커지고 작품들이 이른바 설치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대형화, 물량화하는 상황에서 작가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작비용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미술관에서가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에서 각자가 충당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화랑이나 기업체의 후원을 끌어들이는 것은 작가가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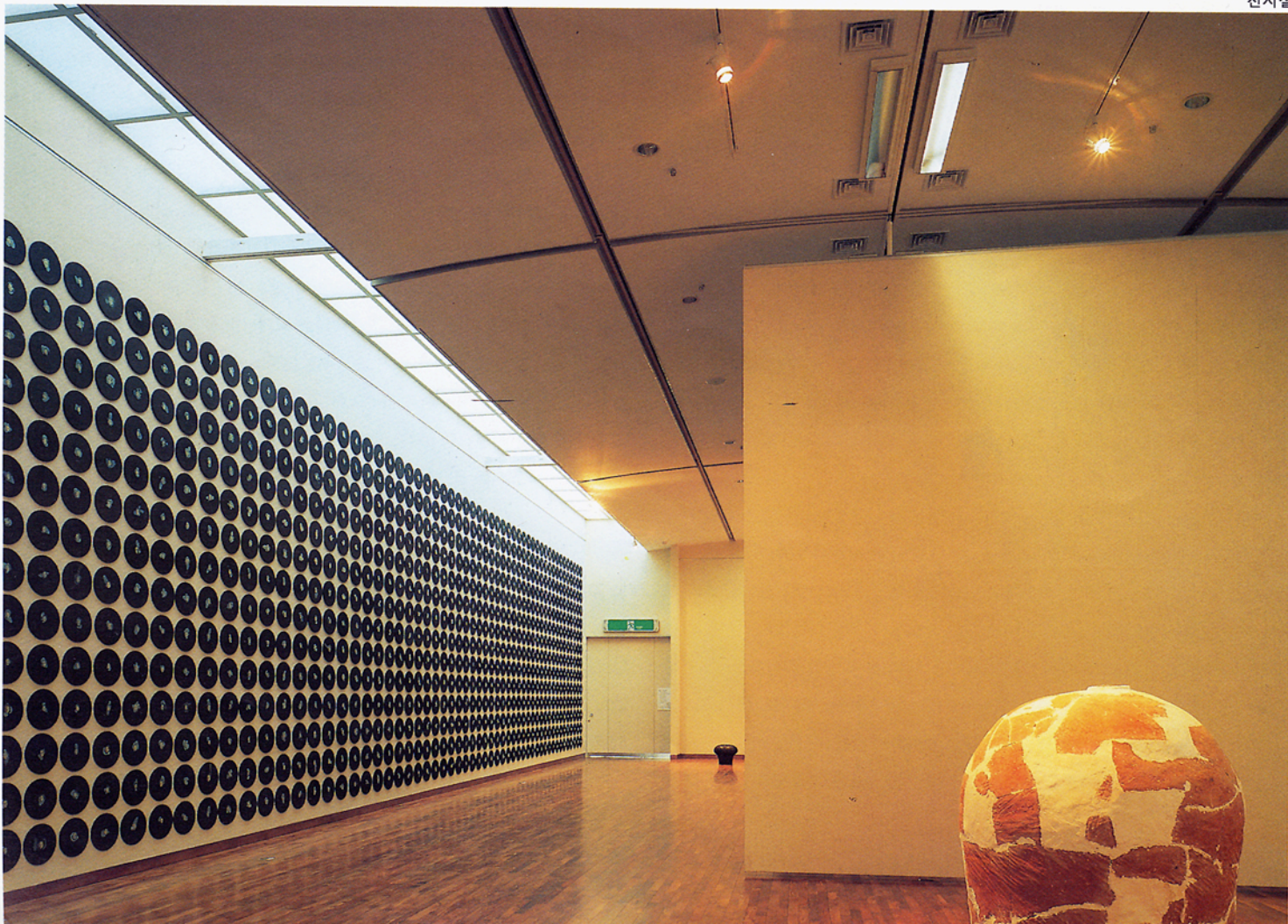
나는 이쯤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한다. 미술관과 전시회가 미술작품과 관객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는 제도장치라면 우리의 미술에 관한 정책은 지나치게 이런 차원에만 집중되어왔다. 대형 미술관을 신축하고 국제비엔날레를 열고 외국전시회에 작가를 보내는 것이 그런 일들이다. 그곳에는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이들은 다음번 선거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낸 지역단체장이나 정치가들에게 표를 던질 유권자이기도 하다. 미술관, 문예회관 등의 신축이야말로 가장 가시적이고 지속적이며 또 말썽의 소지가 적은 치적사업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질적으로 개선된 한국미술을 기대한다면 이제 이러한 결과에 대한 관심을 과정으로, 작품생산 쪽으로 돌려야 한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미술관 건물을 짓는 대신, 작가들이 일을 할 작업공간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미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할 미술관에 가서, 마치 돈많은 친척집에 초대된 가난뱅이가 느끼는 것과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대형 치적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 이 IMF의 시대가 역으로 이런 소규모의 인프라를 만들 '구조조정'의 기회라고 말한다면 비현실적인 주장일까? □





로비



전시실

비평 Critic

명쾌한 해법 솔직한 표현

현택수 Hyun Taek - Soo

경일대 건축공학과 교수

들어가며 부산시립미술관의 개관은 문화가치성이 사회평가의 최우선 척도가 될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기뻐할 일이지만, 척박한 우리의 문화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서글픈 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인구400만의 매트ropolis 부산, 그 부산이 오늘에서야 공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신의 미술관을 갖게 되었다. 문화시민의 긍지를 얻고, 미술의 산실이 되고, 작품의 건축을 더하는 계기라 여기니 그나마 반가운 일이고, 다행히 축하할 일이다.

시민생활 속으로 COM(국제 박물관 협의회 :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1974년 총회는 뮤지움의 현대적 역할을 "물적 총화에 머물지 않고 시대 문화를 총체적으로 조직하고 계획하는 행위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뮤지움의 전시기능과 더불어 수집·보존, 조사·연구, 교육·보급의 고유한 내재 기능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문화생활에 대한 지도로 확대하여 외향화하는 개념이다. 현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성격을 시민 생활에 대하여 열린 의미로 해석하여 우리 생활 속에 있게한 규정이다. 생활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은 생활의 주체와 친숙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시민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한 접근성은 입지성에 우선적으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미술관의 입지가 크게 도시생활권내에서 도시건축의 형태를 지니는 경우와 녹지를 포함하는 자연환경 속에서 도시건축과 격리되는 경우로 대별되는데, 비록 시당국이 두세곳의 후보지 중에서 사전 결정된 일이지만 일단은 시민의 일상적 생활권내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도시내 입지유형은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부지면적의 제한성에 따른 오픈스페이스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주어진 대지면적이 5,000평이며, 현상공모 당시 군사보호구역(수영비행장-현재는 정보단지로 계획추진)에 의한 고도한계(20m이하)로 제한을 받아 건축면적은 약 1,500평으로 계획되었다. 상업건축이 아닌 공공문화건축으로서 외부공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하고 좋은 환경성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88 올림픽 요트경기 개최를 기념하여 조성된 올림픽 공원의 기존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매우 긴요하게 된다. 계획대지의 협소성을 이용효율 제고로 극복하고 올림픽공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놀이광장 쪽으로 정면성을 설정한 배치해법은 미술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시민행위의 영역성을 확충하고 상징성을 부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타당하게 여겨진다.

담길 내용과 담을 그릇 미술관은 미술작품을 담는 그릇이다. 담길 내용이 다양할 때 공간은 융통적 가변성을 지닐 것을 강요받는다. 프랙시빌리티가 한껏 담긴 유니버설 스페이스이기를. 전시물과 전시공간의 관계에서는 형태로 규정된 공간에 내용이 진열되는 경우와 내용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요구된 그릇의 계획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경우, 전시내용 및 장르가 계획단계에서 규명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발주자측의 사전요구가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가변성과 융통성은 불확실성으로 번안·대응함이 보편적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때는 기본에 충실하게 된다.

즉 건축적 기능의 합리적 해결과 공간의 양적(깊이와 높이) 해결로 귀착된다.

기능분류와 동선체계는 명쾌하게 처리되었다. 전시, 교육, 학예, 연구, 수장공간의 명확한 구분에 의하여 저층부 및 상층부에 성격을 부여하고, 메이저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순환시키는 소위 MAC형(다층의 홀 및 실연속 순회형식)의 평면을 채택하였다. 또한 각 기능별로 특성화시키고 기능간의 리듬조절- 예를 들면 순수 감상 공간을 사이에 공원이 조망되는 휴게공간을 삽입한다든가 내부전시실과 테라스 조각전시상을 교차시킨다든가 중·소 전시실이 외부 갤러리화된 내부의 중앙홀로 반복 연결시킨 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가변성 확립은 공간의 양적 확보(천정높이 4.2~5.2m)에 의한 가변벽체로 처리하였고, 설치미술공간에는 바닥에 합판 위 비닐타일 마감으로 작품의 바닥고정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내용물의 표현유구에 충실한 배려를 보였다.

조형성 외관상 현대산업사회에서 활발한 국제무역의 도시 부산이 강하고 뚜렷함으로 상징된다. 스킨 디자인은 빠르고 매끈하여 첨단화되고, 고층관의 양푼날 지붕은 그대로 산업화이다. 직선의 강건한 상실함에 곡면의 유연성이 파도로 밀려온다. 내부기능의 과장없는 외적 표출, 구조 시스템 자체의 매스화에 의한 볼륨감, 본체에 직교한 전시동에 의해 형성된 반복리듬이 강한 음영을 남긴다. 외부미감재료의 알루미늄 패널 채택은 현대적 미학으로서 스크테크(slick-tech)로 이해할 수 있다. 고안체계로는 미니멀 아트처럼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배열함으로써 형태와 허공의 관계를 조형성의 본질로 꾀하였다. 절제된 표현은 명확하고도 간결한 취향을 보이며 유동적 자연에 대하여 특수한 인공물로 제시된다. 내부의 공간성은 드넓게 트여진 엔트런스 홀과 로비에서의 다채로운 활력으로 채워져야 하겠다. 만남과 매표, 퍼포먼스와 휴식 및 오락까지도 기대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상하 공간을 연계하는 주계단의 실내외장적 역할은 욕심을 내려할 만큼 절했다.

맺으며 전시문화 건축에 있어서 빛은 그야말로 감동일 수 있다. 설계자도 칸의 김벨미술관 내부공간에서의 진전한 감동을 피력하였다. 신전건축의 채광층(clearestory)으로부터 내려오는 빛과 그 빛을 얻는 방법은 건축구조에 영향을 미쳐왔다. 인공조명까지도 건축의 복층화가 가능하도록 영향하였다. 즉 빛의 처리는 다루는 기법 혹은 전시 내용물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구조적 열개로부터 관여하여 건축 공간에 본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알뜰한 배려로 설계된 3층의 고층창 전시실은 비디오 아트나 개념미술의 경우 개관전에서처럼 기왕의 자연의 빛조차도 가려야 하는 모순을 낳게도 된다. 2층 정도에서 충고를 달리한 설치미술전시실을 두어 스크플로어를 통한 공간의 변화도 꾀해 볼만 했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주지의 사실인 현대미술의 기발한 표현성에 비추어 벽과 바닥이 아닌 천장으로부터의 전시, 그것도 상당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고려됨이 바람직하겠다. 고부가가치인 전시공간에 대한 항온항습효과는 각 공간의 특성에 최적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당서비스체계 (shared service system)를 갖 추도록 유도하여야 겠으며, 휴식 및 매개적 전이공간으로 설정된 스텝가든이 객석이 되는 옥외무대(지하층부의 부분적 피로티화에 의한)설치는 시민이 주체된 행위에 풍요로움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만 했다. 완벽을 추구하는 욕구는 무한정이다. 작품성이 담긴 부산시립미술관 건축에 시당국은 놀이광장을 포함한 올림픽공원의 랜드스케이핑을 함께 하도록 제안하고 싶다. 그래도 남은 우리의 몫은 부산시립미술관이 미술품의 수용소가 아니라 시민생활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문화의 장이 되도록 가꾸어가는 일이라. [1]